

‘잔술’ 판매 허용 1년… 반응 시큰둥한 이유는?

지난해 5월 법규 시행…음식점·주점 등 판매 꺼려

자영업자·손님 “위생 문제 우려…찾는 사람 없어”

정부가 잔술 판매를 합법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자영업자와 외식업체, 소비자 모두 위생·관리 문제 등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

기에 담은 행위는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카페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 가공·조작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재부가 이번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잔술은 2000년대 초반까지 포장마차 등에서 판매됐으나 주류 문화가 달라지며 점차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잔’ 단위로 주류를 팔도록 허용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음식점, 주점에서는 잔술 판매를 꺼리고 있었다.

소주나 막걸리를 잔술로 판매할 경우 뚜껑을 자주 여닫으면서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잔술을 팔면 손님 회전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도 이유다.

실제로 대다수 음식점의 메뉴판에는 병당 3000~5000원에 맥주, 소주를 판매한다고 기재됐지만 ‘한잔’, ‘잔술 판매’ 문구는 없었다.

동구 대의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호철씨는 “술을 가볍게 즐기는 방향으로 음주 문화가 변화해 1인 가구, 1~2잔만

먹는 사람을 위한 잔술 판매를 고민했지만 매장 특성상 생맥주 주문이 많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잔술보다는 차라리 한 병을 주문한다. 다른 식당에서도 잔술 판매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육전, 김치전 등 모듬전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막걸리집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50대 업주는 “발효주인 막걸리는 한 번 뚜껑을 따게 되면 특유의 청량함과 특유의 산미를 오랫동안 보유할 수 없다”면서 “잔술을 팔려면 메뉴판 뿐 아니라 포스기(판매 정보 관리 기기)도 바꿔야 하는 등 번거롭다”고 혀를 찼다.

손님들도 위생과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모씨(36·화정동)는 “잔술은 누가 먹었는지, 이물질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어차피 안주도 먹어야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잔술 판매 현실성을 지적하며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부장은 “지난해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로부터 컨설팅, 관련 문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남구, 구립·작은도서관 동아리 육성 ‘호응’

총 29개 활동 중…주민 모임도 활발

광주 남구가 추진하는 구립·작은도서관 동아리 육성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구립·작은도서관 동아리 육성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책 읽는 문화 확산과 책을 매개로 한 주민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 열풍이 불면서 이 사업도 순풍을 만났다.

현재 구립·작은 도서관 소속으로 활동 중인 동아리는 총 29개다.

구립도서관인 문화정보·푸른길·청소년·효천어울림 도서관 4곳에서 주민 동아리 19개가 활동 중이고, 작은도서관 9곳에서는 10개의 주민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서 제공한 도서관 내 공간에서 독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도서 구매 및 각종 재료 구매를 위한 비용 30만원도 지원받고 있다.

남구는 동아리 활동이 확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동네방네 동아리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공도서관 중심의 문화적 삶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특히 동아리 회원 대상으로 저자 강연회와 북 토크 등 동아리 연합활동 지원 사업과 우수 동아리 표창 등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동아리 활동 회원들 뿐만 아니라 수험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화재 건물 해체 작업 11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작업자들이 화재로 탄 정련동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투자금 35억 가로챈 부동산 업자 실행

‘고수익·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35억원의 투자금을 쥔 50대 건축·부동산업자에게 실행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법 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동생 B씨(48·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부동산, 건축물 투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부동산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신속 사법비 모

집 명목’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게 했다.

9개월 안에 수익률 25%를 지급하고, 만기 시엔 원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했다.

그러나 A씨 업체는 부동산 미분양으로 수익금이 없었고, 부동산 전체 분양이 완료돼도 투자금, 은행 대출 원금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악화된 상태였다.

B씨는 투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며 A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도와 공전자기록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에 속아 피해가 확대된 것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북구, 침수 피해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 지원

최대 300만원… 14일까지 북구청 방문 신청

광주 북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긴급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빗물이 상가 출입문 등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지원해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한 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북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용봉로 주변(북구청 사거리~신안교), 신안교 일대, 운암시장, 공구의 거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이력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확인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상가당 최대 3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지원사업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북구는 2020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2회 이상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자기 부담률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총 170여개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행복동지 설치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북구는 이날 말 이번 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2차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2-410-6739)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시는 같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행복동지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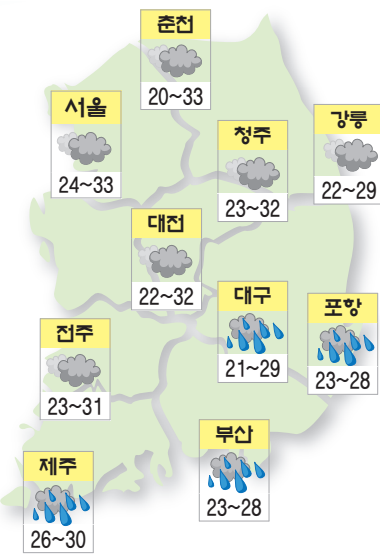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SOCIETY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50 달출 21:06
예보 19:25 달진 08:39



광주	22~29
목포	24~29
여수	24~28
순천	22~29
구례	22~29
광주	23~29
임도	23~29
흑산도	25~30
고흥	23~29
진도	23~29

목포	밀물(고)	04:16 / 16:26
	썰물(저)	09:24 / 21:33
여수	밀물(고)	10:58 / 23:22
	썰물(저)	04:49 / 16:53

또 노쇼사기…완도해경 사칭

‘만년필’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완도해경을 사칭한 공문서위조 사례가 발생.

1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 한 업체가 ‘완도해경 휴연 부스 철거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수신했다며 확인을 요청.

해당 공문에는 완도해양경찰로 고와 직인 등이 모두 포함. 그러나 해경 측이 확인한 결과 공식 발송 사실이 없는 위조 공문으로 드러나.

업체 대표의 사실 확인으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완도해경은 이 같은 수법이 다른 기관·단체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광산구 우산동서 청동기~조선시대 유구 출토

적석 등 135개 확인…광주지역 첫 조선통보 발견

분청사기·청동술가락 유물도…“사찰 운영 추정”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청동기~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 토광묘, 분청사기 등 유구, 유물 135개가 발굴됐다.

이번에 확인은 된 유적은 사찰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광주 사찰의 조성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우산동 불당골사지(1476번지) 일원에 청동기시대 적석(돌을 쌓아 만든 구조물) 1기, 고

려~조선시대 건물지 6기, 수혈 5기, 주거지 1기, 지상건물지 1기, 토광묘 10기, 분청사기 등 총 135개의 유구·유물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수광공원개발㈜과 호남문화재연구원이 광주시 수광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앞서 지난 2023년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면적은 8625㎡로 대부분 밭으로 경작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곳이다.

발굴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적석 1기,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6기, 주거지 1기, 수혈 5기, 지상건물지 1기, 토광묘 10기이다.

유물은 총 111점으로 청자 5점, 분청사기 9점, 백자 25점, 도기 13점, 옹기 3점, 암기와 17점, 토제품 3점, 옥 1점, 석기 1점, 청동기 13점, 철기 4점 등이다.

확인된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270cm, 너비 220cm, 최대 깊이 48cm이다. 건물지 1·2호에는 아궁이, 배연구, 배수구 등이 남아 있고, 불피운 흔적이 있었다.



내부에는 구들에 사용된 돌 일부가 있었고, 측면에는 아궁이와 배연구가 배치됐다. 토광묘(1호)에서는 분청사기, 청동 술가락, 동전(조선통보), 옥 등 다수 유물이 발견됐다.

고려~조선시대 주로 사용된 토광묘의 피장자는 대부분 백성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12세기 중반 이후 보편화 됐다.

내부 시설로는 요갱(腰坑), 부장 공간



등이 있으며, 요갱은 시신을 안치한 목판의 허리춤 부근에다 다시 땅을 파고 내려가 만든 둥근 구멍으로 장례 풍습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조선통보는 1423년 당나라 개원통보를 본떠 만든 동전으로, 1670년대 상평통보가 국가의 공식 통화로 유통될 때까지 사용됐다.

광주에서 조선통보가 출토된 사례는

없지만 김해 죽곡리유적, 창원 가음정유적, 인천 불로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암기와 17점 중 문양이 확인된 것은 8점으로 수지문, 격자문, 집선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문양 기준을 볼 때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사찰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전언과 지명 등을 기초해볼 때 소규모 사찰, 불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며 “문헌자료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는 점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